

장독정원-전주 한옥마을 익산 시티투어로 연결

고스라, 이달부터 전통문화투어 시범 실시

익산시가 4000여개 장독정원 관광자원과 전주 한옥마을을 시티투어로 연결해 전통문화 관광의 폭을 확장시켰다.

3만여평의 장독정원에 4000여개의 용기로 유기농 전통발효식품 체험을 선보이는 고스라이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투어를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2023 익산생문의 해'로 관광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력을 통해 전통문화 관광시장 확장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북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과 함께 고스라를 통해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미식을 맛보고 직접 발효식품을 만들어 보며 미식체험 관광으로 전문문화 여행의 질을 높인다.

여기에 정갈한 장독대, 산수회에서 발췌한 소나무 숲, 산책길로 또 다른 풍경의 전통의 맛과 여유, 힐링을 제공한다.

전통문화 투어는 금, 토 일 주말 예약자가 15명 이상이 되면 투어버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7월 말까지 운영 예

정이다.

여행신청은 홍보 위탁사인 내비넷웍스 063-231-9966(전화), concierge24(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문화 투어 버스는 하루에 총 2대가 운행하며 9시 출발하는 1호차는 전주 전북은행 한옥마을 앞에서 아가페정원, 고스라, 미륵사지 투어를 거쳐 전주 중앙문 전복은행에서 오후 3시에 하차한다. 11시 2호차 출발하는 동일하며 고스라, 교도소테트라, 아가페 정원 투어로 오후 5시에 하차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23일 핵심 정책 발굴을 위해 전문기자로 구성된 '군산시 정책자문단'을 정비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군산 발전 이끄는 동력 되길”

시, 정책 발굴 위한 '정책자문단' 킥오프회의 개최

군산시가 23일 핵심 정책 발굴을 위해 전문기자로 구성된 '군산시 정책자문단'을 정비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시 정책자문단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재단의 이차전지 기업 대거 유치,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 등으로 군산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시의 성장동력을 이어갈 정책발굴을 위해 발족했다.

정책자문단은 군산대학교 최원성 부총장을 단장으로 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정책발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킥오프 회의 시 전북연구

원의 이강진 선임연구위원이 정책 발굴 사례와 발굴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위원들 간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돼 앞으로 정책자문단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발굴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하는 만큼 금번 발족된 정책자문단이 군산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25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목표로 정책자문단 활동과 병행해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 원광대, 도시발전 상생 ‘맞손’

지역발전 방안 논의... 시청 추우회와 원광학원 축구단 친선경기 열어

익산시가 원광대학교와 도시·대학간 상생협력으로 지식집약산업시대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지방소멸사태를 대비해 첨단기술을 앞세운 지식기반 공동체역량을 강화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와 원광대의 안전 발표 및 상호 협의사항 논의, 협약 체결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한 익산 주소찾기 및 고령자방기부제 동참 협조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정책을 홍보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른 시범도시 구축 협조 등 고급 청년인력 육성과 첨단산업 연구발전에 협력을 강조했다.

원광대학교는 글로벌 대학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학교 복합시설 개발 지원 사업과 익산시 정책형 연구과제 개설 협조, 원광학원 관련 지역내 영문도로 표지판 정비 등을 안전으로 발표했다.



지난 23일 원광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성태 원광대 총장(사진 왼쪽)과 정현을 익산시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현을 시장과 박성태 총장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간담회가 열리는 시각 원광대학교 대운동장에서는 익산시와 원광대의 축구 친선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친선경기에는 익산시청 축구 동호회(추우회) 및 원광학원 축구단이 참여해 양 기관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박성태 총장은 “전국적으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의 시대를 맞아 지자체와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원광대학교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적 자원 및 익산시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 양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대표단, 오늘 자매결연 40주년 미국 켈버시 방문

청소년 홈스테이 강화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등 방안 모색

익산시와 미국 켈버시가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우호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한다.

시는 28일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최중오 시의회 의장 등 7명의 대표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켈버시를 방문하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청소년,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류협약 확인서에 서명하고 기념품을 교환하는 교류행사를 실시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청소년 홈스테이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 인원 증원 등에 대한 내용과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켈버시 방문을 통해 두 도시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오랜 기간 두 도시가 화합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983년 9월 21일 켈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청소년,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상호교류를 해오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를 생생하게 전달해 국가인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무성화단 무공훈장 수여 및 6.25참전유공자회 소속 이날 행사에는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유족 기관 단체장 및 군인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의 위훈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했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대회사 기념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UN 참전국 국기를 게양해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6.25 전쟁 사진전을 통해 전쟁의 고통과 슬

6·25 전쟁 제73주년 안보 결의 “참전 용사들의 공헌에 경의”

군산시

군산시는 25일 군산 시청 대강당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유족 기관 단체장 및 군인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의 위훈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했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대회사 기념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UN 참전국 국기를 게양해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6.25 전쟁 사진전을 통해 전쟁의 고통과 슬

픔을 생생하게 전달해 국가인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무성화단 무공훈장 수여 및 6.25참전유공자회 소속 이날 행사에는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유족 기관 단체장 및 군인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의 위훈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했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대회사 기념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UN 참전국 국기를 게양해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6.25 전쟁 사진전을 통해 전쟁의 고통과 슬

군산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사업 중간정산 결과 보고

신탁계좌 수입 · 지출 내역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 보고

시의회 “정산방법 · 기준 명확하게 해 투명 추진” 주문

군산시는 지난 23일 군산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사업 중간정산 결과에 관련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정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장 이전사업의 주요개념 및 사업 전반 구도를 설명하고, 신탁 관리되는 총 4개 계좌의 수입 · 지출 내역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본 사업의 개발이익은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을 말하며 여기서 지가차익은 도시계획 변경 후 지가에서 변경 전 지가와 기반시설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되었고, 사업수

익은 공동주택 사업사행에 따른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장이전을 다 하고도 남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초과이익의 51%를 시에서 공익적 방안에 환수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중간정산은 당초 공장이전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었으나 시의회 등에서 중간정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한 사항으로, 이번 중간정산은 회계법원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탁계좌의 수입 ·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을 보고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정산방법,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 최종 정산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은 도심화장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 해결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장이전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헌화를 거쳐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2019년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18년 비등도등으로 신공장 이전 및 기존 공장 철거가 완료된 이후 현재는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학교, 공원·녹지 등이 입지한 신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익산시는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 · 시의원,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및 9585부대 3대대장 보훈단체장 및 회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선정해 표창했다.

특히 육군본부에서 추진중인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장관을 대신하여 익산시장이 이창모 육군병장 하이봉을 재너님께 무성화단 무공훈장을 전달했다.

또한 국가보훈부, 전북서부보훈지청,



익산시가 합동으로 6.25참전 유공자 6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복을 수여하고 평화와 회생을 기리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정현을 시장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할 채 살아오신 참전유공자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지속 실시

군산시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입양 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내장형 동물등록, 펫보험가입 등을 지원해 입양자들의 부담을 줄여 입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를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유실·유기동물의 재발생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야외수영장 내달 7일 개장

소통동에 위치한 군산 야외수영장이 다음달 7일 개장한다.

군산시는 지난 23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월 20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 야외수영장은 부지면적만 약 1만1,617㎡에 달할 정도로 넓고 쾌적한 공간에 연못대별로 물놀이할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어린이풀, 유아풀이 조성돼 있다. 또 워터슬라이드 2개소, 종합놀이시설, 분수대를 비롯해 카페테리아 등의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다.

시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해 이용객 편의를 돕고 샤워장 시설을 보수, 수조 청소와 바닥 탄성포장 · 물놀이시설 안전성 검사와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객은 1일 2,800명으로 제한하고 2부제로 운영한다. 1부 입장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부 입장객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숙박업소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

익산시가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숙박업소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지부장 김용만) 대표자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일부 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하고 숙박업 영업주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 개최 시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자체 △배척하고 친절한 숙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8월 말까지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숙박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한 숙박 요금 모니터링 등을 병행해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 누리집에 위반업소를 공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